

아모그린텍 (125210)

[다시봐] 27년 매출성장 기대 요인

회사개요

아모그린텍은 첨단소재와 기능성 부품, 환경·에너지 시스템의 등의 사업영역을 가진 소재 부품 기업이다. 2004.1월 설립되었으며, 2019.3월에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2010.2월에 아모센스에서 아모그린텍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1H26 실적은 매출액 665.3억원, 영업이익 34.6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2%, 39.3% 하락했다. 에너지환경사업부내 ESS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부에서 1H25대비 매출액이 감소했다. 하지만 2027년에는 다양한 성장 요인들에 기인한 매출성장이 기대된다.

고효율 자성소재: 테슬라 ESS & 휴머노이드 통한 매출 성장

고효율 자성소재. 동사는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고효율 자성소재를 개발한 기업이다. 동사의 고효율 자성소재의 경쟁력은 고효율 나노 결정립 합금 설계 기술이다. 2027년 고효율 자성소재의 매출액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테슬라 IR에 따르면 Energy Storage Deployments(GWh)의 Median 수치는 2026년 56.0GWh→2028년 98.9 GWh→2030년 150.7GWh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5~26년의 증가분 대비 26~27년의 증가분이 상향된다는 점에서 테슬라 ESS향 매출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더불어 동사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충전기내 전력변환장치용 자성소재 주 공급사로 선정되었다. 2H26 공급 시작을 통해 연내 초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 매출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SS: 북미, 일본 배터리 백업 시장 전환 수혜

업계 최고 수준의 BMS 및 패키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냉각시스템, 고전압 차단기 등 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다. 북미 고객사인 AMERICAN TOWER는 아프리카에 이어 미국에서도 통신 인프라용 LFP 비상전원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일본 대규모 정전·통신장애를 계기로 일반적인 주요 기지국은 최소 24시간 이상, 재난대응 거점 및 도서/산간 등 중요 지역은 최소 72시간 이상의 예비전원을 확보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납축전지를 사용했으나, 장시간 백업시 무게와 설치공간의 이슈로 2차전지를 통한 백업전력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주요 통신사로의 매출이 기대된다.



권명준 스몰캡
myoungchun.kwon@yuantakorea.com

서석준 Research Assistant
seokjun.seo@yuantakorea.com

NOT RATED (I)

목표주가 -원 (I)

직전 목표주가 -원

현재주가 (9/18) 6,180원

상승여력 -

시가총액	1,020억원
총발행주식수	16,496,790주
60일 평균 거래대금	8억원
60일 평균 거래량	136,988주
52주 고/저	15,860원 / 4,640원
외인지분율	6.84%
배당수익률	0.00%
주요주주	김병규 외 9인

주가수익률 (%)	1개월	3개월	12개월
절대	3.3	(30.0)	(15.3)
상대	4.2	(15.3)	(12.3)
절대 (달러환산)	5.5	(22.7)	(15.1)

Forecasts and valuations (K-IFRS 연결)

(억원, 원, %, 배)

결산 (12월)	2022A	2023A	2024A	2025A
매출액	-	1,476	1,286	1,306
영업이익	-	123	45	94
지배순이익	-	130	21	59
PER	-	18.3	72.5	17.8
PBR	-	3.5	2.2	1.3
EV/EBITDA	-	14.8	16.2	8.0
ROE	-	37.9	3.0	7.8

자료: 유안타증권

금융투자분석사의 확인 및 중요 공시는 Appendix 참조

회사개요

아모그린텍은 첨단소재와 기능성 부품, 환경·에너지 시스템의 등의 사업영역을 가진 소재부품 기업이다. 2004.1월 설립되었으며, 2019.3월에 코스닥에 상장되었다. 2010.2월에 아모센스에서 아모그린텍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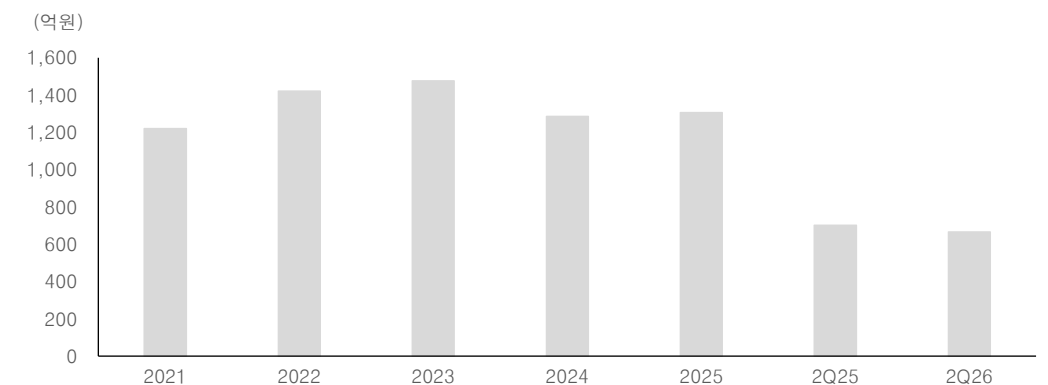
사업영역은 첨단소재 사업부, 기능성 부품, 에너지·환경 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첨단소재는 고효율 자성소재, 방열소재, 나노 멤브레인 소재 등이 해당된다. 기능성 부품은 플렉서블 및 소형 2차전지이다. 에너지·환경시스템 사업부에는 기지국·중계기용 ESS, SiC파워반도체용 AMB모듈 등이 있다.

고효율 자성소재, 나노 멤브레인 등이 포함되어 있는 첨단소재사업의 매출액 비중은 55.6%(1H26 기준)로 가장 높다. ESS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에너지환경사업부는 39.7%로 점유율이 상향되고 있다.

1H26 실적은 매출액 665.3억원, 영업이익 34.6억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5.2%, 39.3% 하락했다. 에너지환경사업부내 ESS를 제외한 대부분의 사업부에서 1H25대비 매출액이 감소했다.

하지만 2027년에는 다양한 성장 요인들에 기인한 매출성장이 기대된다.

[차트 1] 아모그린텍 매출액 추이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고효율 자성소재

고효율 자성소재. 동사는 국내 최초, 세계 3번째로 고효율 자성소재를 개발한 기업이다. ESS, 피지컬 AI, 전기자동차 등의 분야에서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고 파워 효율을 높이는 소재이다. 고효율 자성소재는 초당 백만℃로 급냉하여 액상의 원자구조로 된 박판의 리본 형태로 제조하고 있다.

비정질(Amorphous) 리본은 금속 내부의 원자 배열이 규칙적인 일반 금속과 달리, 유리처럼 원자가 불규칙하게 얹혀 있는 비정질 구조를 가진 얇은 금속 합금 띠이다. 주로 철과 다른 금속들의 합금으로 만든다. 초당 약 백만℃ 이상의 고속 급랭(초급랭 공법)이 활용된다. 고속 회전하는 냉각 롤러에 분사하여 급속 냉각시킨다. 원자들이 규칙적인 배열을 만들 틈이 없이 그대로 굳어 비정질 상태가 구현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두께 20~30마이크로미터의 얇은 리본(띠) 형태로 뽑혀 나온다.

결정의 경계면이 없어 자기 저항이 매우 낮다. 전기에너지가 자기에너지로 변환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 손실이 극도로 낮아, 전력효율이 높일 수 있는 소재이다. 이런 특성으로 전자파 차폐, 전기차 및 전장 부품, 고효율 변압기 등에 사용된다. 반면,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충격에 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가공 공정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동사의 고효율 자성소재의 경쟁력은 고효율 나노 결정립 합금 설계 기술이다. 고객사에서 요구하는 고효율 특성을 갖는 나노 결정립 합금의 조성, 배합비율을 결정하는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주요 제조업체는 일본의 Proterial, 독일의 VAC가 대표적이다. 이외에도 독일의 Magnetec · CERGEN, 일본 Epson Atmix, 중국 Antai · CATECH · Qingdao Yunlu 등이 10여개 기업들이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노 결정립(Nanocrystalline)은 비정질 상태가 더 진화된 형태이다. 현재 상용화된 자성 금속 소재 중 가장 궁극적인 형태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금속처럼 큰 결정 입자를 가진 것이 아니며, 비정질처럼 완전히 불규칙한 것이 아닌 10~15나노미터 크기의 아주 미세한 결정들이 비정질 구조 속에 촘촘히 박혀 있는 하이브리드 구조이다.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성의 성질을 흡수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기존 비정질 리본대비 뛰어나고, 고주파 대역에서 에너지가 열로 빠져나가는 전력손실은 페라이트나 비정질 소재 중 가장 낮다. 둘째, 비정질 리본의 단점인 온도 변화에 따른 성능 저하를 극복, 고온에서도 자성 특성을 유지할 수 있다. 셋째, 효율이 높아 변압기 · 모터 코어 등에 적용시 부품의 사이즈를 줄일 수 있다.

비정질 리본이 전력망 배전 변압기 등 대형 사이즈에 적용된다면, 나노결정립 소재는 고주파, 초소형, 고효율이 요구되는 IT기기들에 주로 사용된다. 전기차 배터리의 직류 전원을 교류로 전환하는 인버터나 온보드차저(OBC) 내부의 노이즈 필터 및 소형 고주파 변압기에 사용된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 디바이스에서는 페라이트 시트를 대체하며 충전 효율이 높은 무선 충전 차폐 시트로 사용된다.

동사의 고효율 자성부품의 주요 제품은 Inductor Core(에너지 변환 효율 업그레이드), Common Mode Choke(전자회로 노이즈 차단), Electric Sensor(모터 컨트롤러 전류량 센싱), Current Transformer(전기사용량 정밀 계측) 등이 있으며, 전방산업으로 ESS, 데이터센터, 전기차 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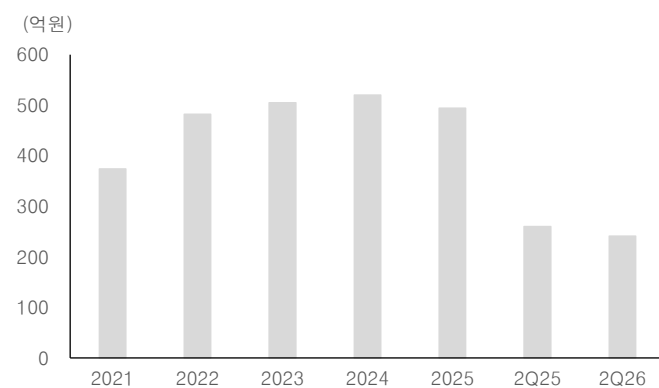
참고로, AC(교류)에서 DC(직류)로 전환시 전력반도체(MOSFET, IGBT 등)가 초당 수만~수십만번 전류를 ON-OFF한다. 이 경우 시간당 전류 변화량이 커지고 동시에 전압도 고속으로 전환된다. 이로 인해 고주파 성분 증가, EMI 노이즈가 증가하게 된다. 나노결정질 소재는 자성소재의 투자율을 확보할 수 있어 노이즈를 억제할 수 있다.

고효율 자성소재 관련 매출액 추이는 아래 그림과 같다. 전체 매출액 중 고효율 자성소재의 매출비중은 30~40%를 차지하고 있다. 주력 고객사는 美 테슬라이다. 고효율 자성소재내 테슬라의 비중은 2/3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테슬라 ESS내 고효율 자성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은 일본의 Proterial, 독일의 VAC과 동사로 추정된다. 1st Tier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2027년 고효율 자성소재의 매출액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테슬라 IR에 따르면 Energy Storage Deployments(GWh)의 Median 수치는 2026년 56.0GWh→2027년 75.0GWh→2028년 98.9GWh→2029년 125.1 GWh→2030년 150.7GWh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5~26년의 증가분 대비 26~27년의 증가분이 상향된다는 점에서 테슬라 ESS향 매출은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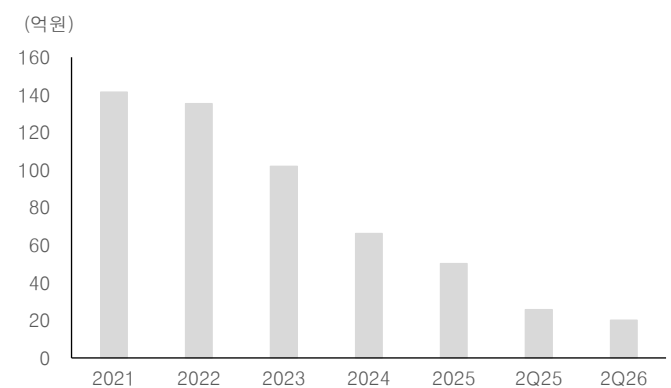
이와 더불어 동사는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충전기내 전력변환장치용 자성소재 주 공급사로 선정되었다. 2H26 공급 시작을 통해 연내 초도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에는 70~80억원 규모의 매출이 기대된다. 테슬라 ESS내 점유율이 동일하다고 가정시 2027년에는 150~200억원 가량의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

[차트 2] 고효율 자성소재 매출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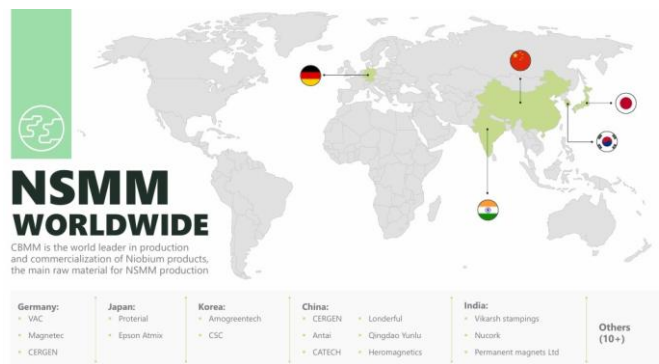
자료: 아모그린텍,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3] 고효율 자성소재 매출 비중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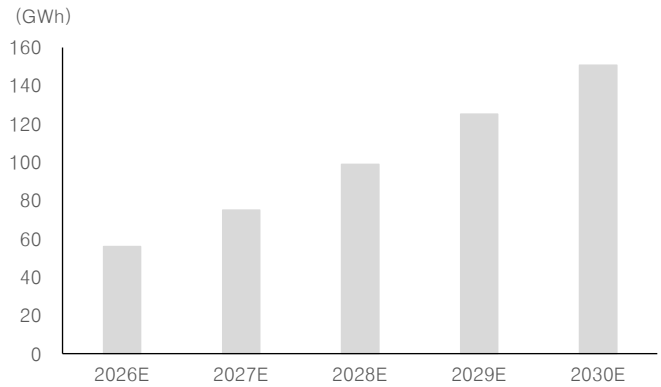
자료: 아모그린텍,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 NSMM 글로벌 관련 기업



자료: NSMM,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4] 고효율 자성소재 매출 비중 추이



자료: 테슬라 IR,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자성소재 관련 주요 제품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ESS

업계 최고 수준의 BMS 및 패키징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냉각시스템, 고전압 차단기 등 Total Solution을 제공할 수 있다. 동사의 ESS 솔루션은 인산철 배터리를 적용하여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고온폭발 안정성, 가스 폭발 안전성이 우수하여 통신, 신재생에너지에 적용되고 있으며, 전기기관차 분야 등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통신. 국내외 통신사향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다. AMERICAN TOWER는 미국의 통신 인프라 기업이다. 기지국 타워를 소유, 통신사에 공간을 임대해주는 사업을 영위한다. 2025년말 기준 15만개 통신 사이트를 보유 및 운영하고 있다. 미국/캐나다내 약 4.2만개, 중남미 약 4.7만개, 유럽 3.3만개, 아시아/아프리카 2.8만개 내외이다.

AMERICAN TOWER는 아프리카내 통신사 장비에 전력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으며, 발전기+태양광+ESS 등의 공유 인프라를 활용하고 있다. 아프리카 일부 지역은 정전 발생횟수가 많아, 통신기지국을 24시간 가동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전력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전이 발생되면 디젤을 이용하여 발전기를 돌리는 방식을 사용했다. 최근에는 리튬이온 배터리와 태양광이 이를 대체하는 방법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 ESS BMS 관련 매출액이 2025년부터 발생하고 있다. 2027년 이후 AMERICAN TOWER는 미국에서도 통신 인프라용 LFP 비상전원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매출액 100억원이 추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총무성은 대규모 정전·통신장애를 계기로 일반적인 주요 기지국은 최소 24시간 이상, 재난대응 거점 및 도서/산간 등 중요 지역은 최소 72시간 이상의 예비전원을 확보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기존 납축전지를 사용해왔으나, 장시간 백업으로 갈수록 무게와 설치공간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향된다. 이로 인해 통신사들은 2차전지 백업전력에 대한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동사는 KDDI, 소프트뱅크 등과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며, NTT도코모와도 진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2027년 이후 관련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역시 매출액 100억원이 추가되는 요인으로 작용될 것이다.

[그림 3] ESS Products(통신용, 데이터센터용, 신재생에너지용)



자료: 아모그린텍,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나노 멤브레인

나노 멤브레인은 3D 네트워크처럼 구성되어 있는 나노섬유가 적층되어 부피 대비 높은 표면적을 가진 그물망 구조의 형태를 한 소재이다. 공기 역학적 힘을 최적화시키는 AHE(Advanced Hybrid Electrospinning) 기술을 적용한 Vent는 나노섬유 소재의 멤브레인으로 투습, 통음, 방수 특성을 보유하고 있다.

나노 멤브레인 관련 매출액은 2022년 이후 홍보하고 있지만, 2027년에는 소폭 성장이 기대된다.

모바일기기와 같이 방수와 통음의 특성이 요구되는 곳에는 Acoustic Vent가 사용된다. 스마트폰은 방수를 위해 내부를 밀폐한다. 하지만 온도나 고도 변화가 발생되면 내부-외부 압력차이가 발생한다. Vent를 통해 공기와 가스를 통과시키는 반면, 액체 물과 먼지 유입을 억제한다. Acoustic Vent는 음향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물의 침수를 막을 수 있어 스마트폰과 같은 모바일 기기에 사용된다. 동사의 Acoustic Vent 역시 스마트폰 등 모바일 제품내 적용되고 있다. 경쟁사와 경쟁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전사업부내에서의 매출성장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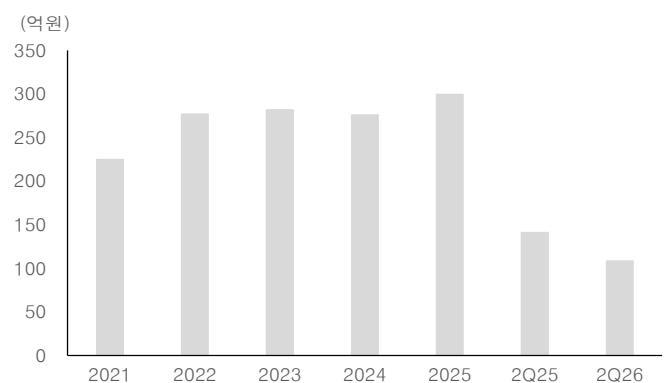
반면 자동차산업내에서는 다른 상황이다. 자동차 헤드램프 등과 같이 방수 성능이 요구되는 경우 Air Vent(Automotive Vent)가 사용된다. 자동차내 Vent가 사용되는 부품은 헤드램프, 배터리팩, HAVC(대시보드 에어 송풍구), 차동기어, 인버터/컨버터 하우징, ECU 하우징 등 다양하다. 국내 자동차 기업향으로 납품을 하고 있다. 차량내 Vent 적용되는 부품수의 증가 확대로 인해 매출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 Vent(Acoustic vent, Automotive Vent)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차트 5] 나노 멤브레인 관련 매출액 추이



자료: 아모그린텍,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아모그린텍 (125210) 추정재무제표 (K-IFRS 연결)

손익계산서 (단위: 억원)					
결산(12월)	2021A	2022A	2023A	2024A	2025A
매출액	-	-	1,476	1,286	1,306
매출원가	-	-	1,143	996	965
매출총이익	-	-	333	290	341
판매비	-	-	210	245	248
영업이익	-	-	123	45	94
EBITDA	-	-	193	125	179
영업외손익	-	-	-23	-12	-28
외환관련손익	-	-	3	27	-2
이자손익	-	-	-29	-28	-23
관계기업관련손익	-	-	0	0	0
기타	-	-	3	-11	-3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	100	33	66
법인세비용	-	-	-31	12	7
계속사업순이익	-	-	130	21	59
중단사업순이익	-	-	0	0	0
당기순이익	-	-	130	21	59
지배지분순이익	-	-	130	21	59
포괄순이익	-	-	129	19	104
지배지분포괄이익	-	-	129	19	104

주: 영업이익 산출 기준은 기존 k-GAAP과 동일. 즉, 매출액에서 매출원가와 판매비만 차감

현금흐름표 (단위: 억원)					
결산(12월)	2021A	2022A	2023A	2024A	2025A
영업활동 현금흐름	-	-	84	86	217
당기순이익	-	-	130	21	59
감가상각비	-	-	48	58	62
외환손익	-	-	1	-14	0
종속, 관계기업관련손익	-	-	0	0	0
자산부채의 증감	-	-	-94	-29	99
기타현금흐름	-	-	-1	51	-3
투자활동 현금흐름	-	-	-129	-75	-148
투자자산	-	-	-13	-14	-6
유형자산 증가 (CAPEX)	-	-	-51	-77	-126
유형자산 감소	-	-	3	3	40
기타현금흐름	-	-	-69	13	-56
재무활동 현금흐름	-	-	89	29	31
단기차입금	-	-	157	13	29
사채 및 장기차입금	-	-	-65	19	3
자본	-	-	0	0	0
현금배당	-	-	0	0	0
기타현금흐름	-	-	-3	-2	-1
연결범위변동 등 기타	-	-	1	9	3
현금의 증감	-	-	45	50	103
기초 현금	-	-	69	114	164
기말 현금	-	-	114	164	268
NOPLAT	-	-	161	45	94
FCF	-	-	86	19	152

자료: 유안타증권

주: 1. EPS, BPS 및 PER, PBR은 지배주주 기준임

2. PER 등 valuation 지표의 경우, 확정치는 연평균 주가 기준, 전망치는 현재주가 기준임

3. ROE, ROA의 경우, 자본, 자산 항목은 연초, 연말 평균을 기준으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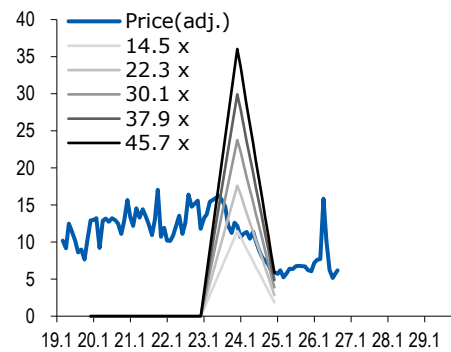
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결산(12월)	2021A	2022A	2023A	2024A	2025A
유동자산	-	-	856	813	882
현금및현금성자산	-	-	114	164	268
매출채권 및 기타채권	-	-	375	344	274
재고자산	-	-	243	249	252
비유동자산	-	-	869	933	1,016
유형자산	-	-	639	688	792
관계기업 등 지분관련자산	-	-	0	0	0
기타투자자산	-	-	26	38	38
자산총계	-	-	1,725	1,746	1,897
유동부채	-	-	853	786	840
매입채무 및 기타채무	-	-	302	250	261
단기차입금	-	-	443	456	485
유동성장기부채	-	-	101	57	72
비유동부채	-	-	184	253	246
장기차입금	-	-	112	145	133
사채	-	-	0	30	30
부채총계	-	-	1,037	1,039	1,086
지배지분	-	-	688	707	811
자본금	-	-	82	82	82
자본잉여금	-	-	480	480	480
이익잉여금	-	-	67	84	142
비지배지분	-	-	0	0	0
자본총계	-	-	688	707	811
순차입금	-	-	470	487	385
총차입금	-	-	664	695	726

Valuation 지표 (단위: 원, 배, %)					
결산(12월)	2021A	2022A	2023A	2024A	2025A
EPS	-	-	789	129	357
BPS	-	-	4,169	4,286	4,917
EBITDAPS	-	-	117	76	108
SPS	-	-	895	779	792
DPS	-	-	0	0	0
PER	-	-	18.3	72.5	17.8
PBR	-	-	3.5	2.2	1.3
EV/EBITDA	-	-	14.8	16.2	8.0
PSR	-	-	16.1	12.0	8.0

재무비율 (단위: 배, %)					
결산(12월)	2021A	2022A	2023A	2024A	2025A
매출액 증가율 (%)	-	-	0.0	-12.9	1.6
영업이익 증가율 (%)	-	-	0.0	-63.6	109.9
지배순이익 증가율 (%)	-	-	0.0	-83.7	178.1
매출총이익률 (%)	-	-	22.5	22.6	26.1
영업이익률 (%)	-	-	8.3	3.5	7.2
지배순이익률 (%)	-	-	8.8	1.6	4.5
EBITDA 마진 (%)	-	-	13.1	9.7	13.7
ROIC	-	-	28.9	4.0	8.1
ROA	-	-	15.1	1.2	3.2
ROE	-	-	37.9	3.0	7.8
부채비율 (%)	-	-	150.8	147.0	133.9
순차입금/자기자본 (%)	-	-	68.4	68.8	47.5
영업이익/금융비용 (배)	-	-	3.9	1.3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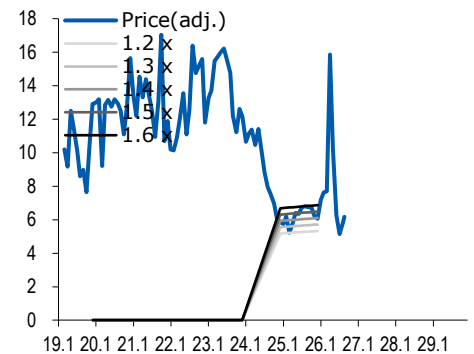
P/E band chart

(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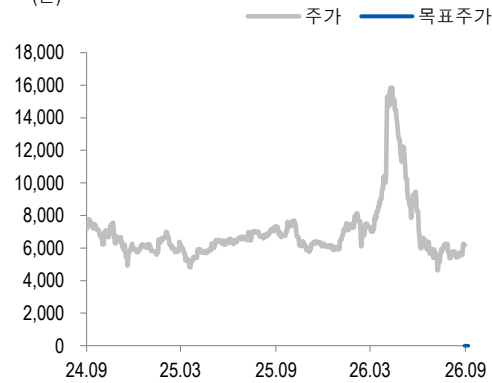
P/B band chart

(천원)



아모그린텍 (125210) 투자등급 및 목표주가 추이

(원)



일자	투자 의견	목표가 (원)	목표가격 대상시점	과리율	
				평균주가 대비	최고(최저) 주가 대비
2026-09-18	Not Rated	-	1년		

자료: 유안타증권

주: 과리율 = (실제주가* - 목표주가) / 목표주가 X 100

* 1)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평균주가"

2) 목표주가 제시 대상시점까지의 "최고(또는 최저) 주가"

구분	투자의견 비율(%)
Strong Buy(매수)	0
Buy(매수)	96.8
Hold(중립)	3.2
Sell(비중축소)	0
합계	100.0

주: 기준일 2026-09-21

※ 해외 계열회사 등이 작성하거나 공표한 리포트는 투자등급 비율 산정시 제외

Appendix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 권명준)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동 종목 발행주식을 1%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자료공표일 현재 해당 기업과 관련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자료공표일 현재 대상법인의 주식관련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종목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절대수익률 기준 투자등급 4단계(Strong Buy, Buy, Hold, Sell)로 구분한다
- Strong Buy: +30%이상 Buy: 15%이상, Hold: -15% 미만 ~ +15% 미만, Sell: -15%이하로 구분
- 업종 투자등급 Guide Line: 투자기간 12개월, 시가총액 대비 업종 비중 기준의 투자등급 3단계(Overweight, Neutral, Underweight)로 구분
- 2014년 2월21일부터 당사 투자등급이 기존 3단계 + 2단계에서 4단계로 변경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